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7 Spring Vol.211



우송인, '프랑스
국립제과제빵학교'로
유학간다!

교양적인 느낌느낌!
축제, 같이 가실래요?
책을 소개합니다.
학교가 내 손 안에!
스마트캠퍼스 파헤치기

봄맞이 우송인들을 위한
꿀 피부 꿀 팁!

2017 우승을 기대하다!
이재훈 총학생회장 인터뷰

알아야 산다! 아껴야 산다!

봄에 감상하면
좋은 영화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벤처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대상의 영광!

MELTING POTS,
WELCOME TO SINGAPORE!

단독 인터뷰

언어재활사 김민아
The-K호텔서울 총지배인 임병설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7 Spring Vol.211



발행처 우송정보대학 학보사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발행인 경 상 직
주 간 김 주 형
발행일 2017년 4월

우송정보대학 "WOOSONG NETWORK"에 게재할 원고를 수시 모집합니다.

- 대 상 : 재학생, 동문, 교직원
- 모집분야 : 학과 행사/동아리 활동/취업, 진학, 시험합격 등 체험수기/연수 및 여행기
- 접 수 : hakbosa@wsi.ac.kr (042-629-6843)

CONTENS

WOOSONG NEWS | 우송뉴스

- 04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선정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
우송정보대학 'K-Move 스쿨' 선정
- 05 뷰티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
글로벌실용음악과, 명장경진대회 및 졸업연주회



- 06 독서감상문 발표경진대회 시상식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07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입학식
- 08 제13기 또래상담자 수료식 및 출범식
새보미 교육
- 09 해외 전공연수 및 외국어학습법 발표회



글로벌 학과, 신입생 영어캠프 시행



WOOSONG FOCUS | 우송포커스

- 10 우송 새내기들을 환영합니다
- 12 <청춘마이크 시즌2>, 거리를 낭만으로 물들이다
- 14 우송인, '프랑스 국립제빵학교'로 유학간다!



- 16 '숯пет동물병원'을 소개합니다.
- 18 청년취업난이란 없다! '일취월장 취업 토크콘서트'
- 20 학교가 내 손안에! 스마트캠퍼스 패해치기
- 22 맞춤형 교육으로 너희들의 취업을 책임질게!
- 24 대한민국 최초, '치과경영과'를 소개합니다!

WOOSONG LIFE | 우송라이프

- 26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 28 교양적인 느낌느낌!
- 30 책을 소개합니다.
- 32 봄에 감상하면 좋은 영화



- 34 축제, 같이 가실래요?
- 36 봄맞이 우송인들을 위한 꿀 피부 꿀 팁!
- 38 알아야 산다! 아껴야 산다!

WOOSONG PEOPLE | 우송인

- 40 치매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카르페디엠
- 42 자랑스러운 우송인! 김민아 언어재활사
- 44 MELTING POTS, WELCOME TO SINGAPORE!
- 46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의 영광
- 48 2017 우송을 기대하다!



- 50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The-K호텔서울 임병설 총지배인님을 만나다!

WOOSONG PRESS KIT | 우송보도자료

- 52 - 우송정보대학,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우송정보대학, 자유학기제 유공기관 표창패 수여기관 선정
- 우송정보대학, 2016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 우송정보대학, 'K-Move 스쿨' 선정
- 53 -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 한·중 상해 월드 페스티벌 대회 금상 수상
- 우송정보대학, 일취월장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 MBC 듀엣가요제,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조규찬 교수의 최고의 무대
- MBC 듀엣가요제, 우송정보대학글로벌실용음악과 재학생 '에미니' 출연
- 54 -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과 박종학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태극권 무예명인 선정
- 우송정보대학, 佛 국립제빵제과학교 프로그램 입학식 거행
-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 대전시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산학협력
- 우송정보대학,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교육용유니트체어 기증 받아
- 55 - 프랑스 제과·제빵 기술 비결은 기본을 잘 다지는 것
- 우송정보대학, LGU유플러스(주) 산학협력 협약
- 우송정보대학, "동구 기관·단체장협의회" 개최



1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선정

우송정보대학은 2017년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에 선정되었다.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은 사회가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산학선도형 대학'으로 개편하고자, 전국 전문 대학 중 44개 대학만을 선정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이다.

우송정보대학은 실용 기술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창의 명장 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9개반 162명이 사회맞춤형(주문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를 20개반 600명으로 확대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진로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상직 총장은 "이번 LINC+사업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역량과 사회맞춤형 교육역량 등을 강화시켜 산학일체형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대학으로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우송정보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B)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산학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자체적으로 감소기업 챔피언반, 해외취업반 등 주문식교육(EOD)을 추진하며 졸업생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

지난 11월 4일, 우송타워 6층 강당에서 「우송정보대학 2016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K-Move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를 움직인다'는 의미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취·창업 현장 지원 및 컨설팅, 멘토·멘티 운영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 해외취업의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K-Move 센터 박현희 차장이 진행하였다. 2016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는 K-Move 사업 안내 및 홍보, K-Move 멘토링, 해외취업 알선,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명회에는 뷰티디자인학부 외 4개 학과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준비사항, 노하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우송정보대학은 한국대표명장을 키워 청년들의 도전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Sol International School에서는 해외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우송정보대학 'K-Move 스쿨' 선정

우리대학이 해외취업사업인 '2017 K-Move 스쿨'에 선정됐다. K-Move 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열정과 잠재력 넘치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명장이 되어 세계로 진출하라'는 슬로건으로 이미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Sol International School을 운영하여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해외취업 학생들을 배출해 왔으며 이번 K-Move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일본 등과 이공계열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경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K-Move스쿨 선정은 그동안 우리대학이 추진해온 해외취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양질의 해외 취업처 발굴을 통해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4 뷰티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

지난 11월 9일, 테크노미디어센터 2층 홀에서 뷰티디자인학부의 졸업전시회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각 전공별 학생들이 2년 동안 배워 온 기술들을 토대로 약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피부관리전공은 학생들 스스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싶은 매장을 전시, 발표를 함으로써 미래의 뷰티 CEO를 향한 첫 발돋움 하였다. 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감성놀이터 '밸런스파크', 향유를 이용한 자연 치료 테라피 'The HUE', 지친 삶에 힐링을 주는 건강관리센터 '나를 찾아서', 자존감 회복과 스타일 UP을 위한 '에쓰美HOUSE', 심심했던 일상탈출을 위한 '특별한 탈출!', 신의 선물 'JOANNA' 등이 전시되었다. 헤어디자인전공은 지금까지 배워 온 메이크업기술과 헤어디자인기술들을 총 활용하여 디자인의 콘셉트부터 제작, 최종 마무리까지 학생들의 손을 거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전시된 작품들은 인모, 아크릴, 광섬유, 및 LED 조명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전시회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수고와 열정에 격려의 말을 전한 송도전 교무처장은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2년 과정을 수료하여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5 글로벌실용음악과, 명장경진대회 및 졸업연주회

글로벌실용음악과는 지난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명장 경진대회 및 졸업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3회를 맞이하는 명장경진대회(Woosong Popular Music Competition)는 재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 진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학기 진행되고 있다. 명장경진대회는 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계신 글로벌실용음악과 조규찬 교수님의 편곡과 지도하에 이루어진 공연으로 꾸며졌다. 기존의 곡에 새로운 하모니와 앙상블이 더해져 글로벌실용음악과 재학생들의 특색이 담긴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제18회 졸업연주회는 작곡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재학생들의 창작곡으로 진행되었다. 발라드부터 신나는 댄스곡까지 총 10곡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익힌 공연 작곡 능력을 펼쳐보이는 자리였다. 졸업연주회에서는 밴드 팀의 실연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10명의 현악기 연주자들이 함께하여 공연의 시각적인 면과 청각적인 부분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다.





6 독서감상문 발표경진대회 시상식

독서감상문 발표경진대회 시상식이 12월 2일 총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정상직 총장, 이현주 부총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명장커리어개발원과 우송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책 읽는 습관과 독서의 생활화, 다양한 독서를 통한 교양, 인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선 발표경진대회에는 총 11명의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책의 느낀 점과 대학생활에 도움을 준 내용 등을 발표했다. 독서감상문 발표대회의 수상자는 총 6명으로 강병준·김세준(철도교통학부), 성태경(컴퓨터정보과), 안병현(간호과)이 장려상을, 정현구(철도교통학부)가 우수상을, 이주경(간호과)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책 읽는 대학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우송정보대학!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독서와 함께, 멋지게 성장하는 우송인들이 되길 바란다.

7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난 1월 18일 테크노디자인관 시청각실에서 제4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다. 창업진흥원의 후원으로 2014년부터 성황을 이루며 열려온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청년창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창업 의식을 고취시키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사업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총 15팀의 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개 팀(런투게더, 이마고, 솔로봇 외 8개 팀)이 무사히 발표를 마쳤다. 각 팀 발표 후 심사위원 간의 질의응답을 가져 양질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청년 창업의 주춧돌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Congratulation!!



8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

2월 16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제53회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성경 이사장, 정상직 총장을 비롯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30개 학과의 1,752명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정상직 총장이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위증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해주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김수연(세무정보과)씨가 이사장상을, 유나영(간호과)씨 외 42명이 총장상을 수여하였다. 공로상 및 대외기관장 표창은 김성현(전자정보과) 외 40명에게 수여되었다. 정상직 총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세계의 주역으로, 글로벌리더로 설 수 있도록 우송에서 기본을 다진 만큼,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도리를 실천하며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참다운 지성인이 되길 바란다."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우송오페라단 및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졸업식의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우송정보대학은 1963년 개교 이래 68,1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한국대표 명장"을 배출하는 전통 있는 학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전의 명문우수대학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9 2017학년도 입학식

지난 2월 23일(목) 우송예술회관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동캠퍼스 및 서캠퍼스 신입생별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는 28개 학과 신입생 2,345명을 비롯하여 학부모,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 정상직 총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을 축하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우송의 새 가족이 된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참된 인성을 겸비한 자기주도적인 리더,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한국대표명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입학식 후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2월 23일(목)부터 3월 3일(금)까지 5일간 우송예술회관과 각 학과에서 학교 적응 및 대한민국 대표명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설계의 기초로 "2017학년도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7학년도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여러 분야의 학문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2016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신입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습동기와 목표를 설정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자존감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새보미 교육

지난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새보미 교육이 실시되었다. 새보미란 새내기들보미의 준말로, 새내기들의 적응을 돕는 선배들을 칭한다. 각 학과의 새보미들은 학생코칭센터의 멘토링 교육 완료 후, 신입생들과의 다양한 활동과 상담 등을 진행하며 학교 생활이 낯선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어 새내기를 이끌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새보미 본인들의 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음은 물론 새보미와 새내기 간 끈끈한 멤버십이 형성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현재 캠퍼스에는 210명의 새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10

제13기 토래상당자 수료식 및 출범식

10월 21일 테크노미디어센터 시청각실에서 제13회 토래상당자 수료식 및 출범식이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정상직 총장과 학생코칭센터 오석선 센터장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금일 토래상당자를 출범한 총 57명의 학생들은 토래 친구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후배들을 지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이 과정을 수료한 토래상당자들은 심리적, 상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상직 총장은 “꿈이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자르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하면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토래 친구들과 상담할 때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라.”는 주문으로 토래상당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12

해외 전공연수 및 외국어학습법 발표회

지난 4월 5일 우송도서관 강당에서는 어학교육센터에서 주관한 2016학년도 2학기 해외 전공연수 및 외국어학습법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 전공연수 및 현장실습에 참여한 총 32명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배운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일본어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은주 외 3명(애완동물학부) 학생들은 고베 일본 동양 어학원과 그루밍 학교에서의 학습내용을 유창한 일본어로 발표하였다. 영어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지예 외 2명(언어재활과)은 싱가포르 ITE 자매대학에서 재학 관련 단기 트레이닝에 대한 발표를, 안이슬 외 1명(외식조리과) 역시 싱가포르 ITE 자매대학에서 외식 관련 단기 트레이닝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며 교내 영어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였다. 영어 경진대회 대상 팀인 전호준 외 2명(글로벌호텔외식과)와 박한진 외 3명(호텔관광과)은 호주의 선진화된 레저와 에코힐링을 겸한 휴양지의 호텔들에 대한 탐방 결과를 발표하였다. 겨울방학에 시행된 6주 간의 토익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마친 유지현(간호과) 외 15명은 호주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체험하고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영어실력 향상 비법과 함께 소개하였다. 이번 해외연수 발표회를 통해 해외 대학의 교류 현황과 해외의 산업체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외국어학습법에 대한 노하우도 소개되었다. 우송정보대학 학생들은 어학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어민 교수에 의한 영어회화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토익사관학교, 영어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등과 같은 차별화된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날 발표한 외식조리과 김유리 학생은 “나는 왜 우송정보대학에 지원했는가”라는 발표 주제로 재학생들에게 우송정보대학이 타대학과 차별화된 세계적 수준의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의 특별한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멋진 우송인들이 되길 바란다.



13

글로벌학과, 신입생 영어캠프 시행

지난 2월 글로벌학과(글로벌명품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과, 글로벌호텔외식과) 신입생 146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영어캠프가 개최되었다. 영어캠프는 신입생에게 입학 전 영어 전공수업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기초 영어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송어학센터에서 주관한 우송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2월 15일에는 Pre College를 시행하여 학과별 커리큘럼과 ICHM 등 해외 프로그램을 안내하였고,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 본격적인 영어캠프가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캠프기간 동안 솔시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 및 호텔과 조리 관련 전공 영어 수업을 통하여 실무 영어능력을 신장하였다. 또한 레스토랑 및 호텔 창업 아이디어를 팀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준비하여 캠프 기간동안 익힌 전공 영어를 직접 활용하고, 팀워크와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신입생 영어캠프에 참여한 글로벌명품조리과 박원기 학생은 “신입생 영어캠프를 통해 경쟁하며 즐겁게 영어를 익힐 수 있었다.”고, 글로벌호텔외식과 김아영과 신하은, 조범희 팀은 “낯설었지만 저녁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친밀감이 높아진 시간이었고, 덕분에 영어 실력은 덤으로 따라온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송어학센터 이인환 센터장은 “글로벌학과의 경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즐거운 동반자로 여러분들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우송 새내기들을 환영합니다

새내기 명장역량강화 프로그램

겨우내 잔뜩 움츠렸던 새싹이 봄을 맞이해 돌아날 준비를 하는 날,
새싹보다 파릇파릇한 새내기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송정보대학에서는 새내기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고 하는데요, 닷새 동안 이어진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어요?



♥ 우송인의 매너

새로운 사회에 한 걸음 내딛은 신입생들을 위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인사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학생들의 일상에서도 나를 돌보이게
하는, 사소해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예절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매너를 잘 익히고 있다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죠! 참으로 간단하지만,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실수하는 일상 속 매너들! 잘 알아두고
익혀서 예의를 갖춘 우송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우송 STYLE

새내기들의 끼를 발산하며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소통의 시간, 우송 STYLE입니다!
역시나 우리 우송정보대학의 새내기들의 끼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정말 HOT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토크쇼를 통한 퀴즈쇼도
열렸었는데요. 이 퀴즈쇼의 대망의 1등 상품은 바로바로 해외
연수!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 또한 만만치 않더군요!



♥ 우송 리더십 및 이미지메이킹

어떤 상황에서의 만남이든 첫인상은 상대에게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새로운 사회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새내기들을
위해 이미지 변화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준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또한 학생들의 취업·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면접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 시연도
보여주셨답니다.



♥ 자기주도적학습법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확고한 비전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 비전을 수립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새내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 초청을 통해 뜻깊은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 비전을 세우는 방법과
자기주도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등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학교생활에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화통소통

학우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배워가는 화통소통 시간!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일방통행, 쌍방통행', '경청스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우 관계
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이어진 '칭찬 사워', '자존감 박수'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해와 타인 존중을 통해
대인 관계가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층 더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또한 조별 활동으로 많은 미션들을 해결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집단의 소속감 향상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 성폭력 예방 특강, 금융 특강

요즘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실 당시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학생들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성폭력(데이트 폭력) 예방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 지식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었는데요.
흥미로운 주제의 특강들을 학생들 또한 경청의 자세로
임해주었습니다.

진행된 새내기 명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은 물론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전체 프로그램 외에도 각 학과별로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진로를 탐색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나의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졸업생 선배들과 산업체 전문가 특강으로 선택한 학과의 진로에 대한
알찬 정보들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에 축하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의 학교생활이
좀 더 높고 유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며,
한 번뿐인 대학 생활! 학우들과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정인 기자

Culture Day

<청춘마이크 시즌2>, 거리를 낭만으로 물들이다



'문화가 있는 날' 다들 뭐하시나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면 영화관과 전시회장은 짝딱한 일상 속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유가 없는 아들에게 사치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그들의 문화생활은 진정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유난히도 날씨가 좋았던 지난 가을,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청춘마이크 시즌2>라는 팸플릿과 함께 대전 복합터미널(용전동)과 은행동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한 밤하늘... 그리고 반짝이는 주변의 불빛들이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과 같이 낭만적인 풍경이었는데요, 선선한 바람을 타고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와 불을 스칠 때마다 마음이 저릿해지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발상황 발생!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미니진(이지은,예미니)'팀의 공연 도중 음향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변이 순식간에 어수선했는데요, 이에 당황하지 않고 퀴즈를 내는 등 능숙하게 관객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매끄럽게 공연을 진행해 준 '미니진' 덕분에 오히려 분위기가 한층 업up!되었습니다. 이어 'D.T.E(강해주, 김민경, 김소라, 배채림, 안정연)' 팀은 현직 아이돌을 방불케하는 통통튀는 비주얼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확 휘어잡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연장의 분위기는 더 후끈 달아올라 박수소리와 환호성,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사운드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한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전문대학 <청춘마이크시즌2>'에서 우리학교 '글로벌실용음악과'가 당당히 선정되어 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린 공연으로, 비록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작사·작곡 및 안무를 고안해내고, 글로벌실용음악과 교수님들도 직접 편곡까지 참여한 작업이었습니다! 단연컨대, 노력과 열정이 빛나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흥취를 느낄 새도 없이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청춘마이크 시즌2>, 시간이 없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갖은 이유로 낭만과 청춘을 잃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아름다운 선율과 두근거림을 선사해준 '글로벌실용음악과' 학생들, 고맙습니다!

❖ 허윤녕 기자



우송인, '프랑스 국립제과제빵학교'로 유학간다!

INBP 과정 입학식

지난 2월 28일, 우송정보대학에서는 또 하나의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바로 프랑스 국립제과제빵학교 INBP 프로그램 입학식이었다. 정상직 총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NBP 과정을 도입한 만큼 학생들의 성장이 매우 기대되며 글로벌 명장이 되는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며 축하하였다. Jean-Francois Astier 교장은 “우리가 함께 제과제빵사로 나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전통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두 학교의 인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선서 후, INBP의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머물러를 직접 메어주며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유학, 제과제빵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품어봤을 로망이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빵, 달콤한 디저트하면 생각나는 나라, 프랑스.

프랑스 루앙(Rouen)에 위치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프랑스 국립 제과제빵학교(L'Institut National de la Boulangerie Pâtisserie, INBP), 이엔베베는 권위 있는 제과제빵 전문교육기관으로서 MOF(프랑스 최고 장인)선발대회 최종심사가 열리기도 하며, 여러 나라의 수많은 외국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학생들까지 그곳의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갖추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어학코스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학생이라면 'INBP'를 가기 위해 힘들게 프랑스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글로벌제과제빵과'와 '제과제빵학부'의 2학년 학생들은 올해부터 'Master Class INBP Pâtisserie WSC' 프로그램을 통해 제과 및 초콜릿 분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제빵분야까지 'INBP'의 수료과정을 그대로 도입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현지 출신 프랑스 명장 및 INBP 한국인 졸업생 교수님들께 총 784시간(8개월)동안 매우 엄격하기로 평판난 INBP의 교육, 실습, 테스트 등 전체 과정을 그대로 따라, 세 차례 테스트를 통과한 후 제과 및 초콜릿 분야, 베이커리 3개 분야의 'INBP 프랑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육의 품질을 위해 'INBP'의 지속적 지원은 물론, 그 기준에 맞는 최고의 실습실을 갖추어 한국에서 프랑스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프랑스의 최고 제과제빵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글로벌제과제빵과 2학년 박경혜 학생은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제과제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빵뿐만 아니라 제과와 초콜릿 기술을 선진 기술로 가르쳐서 정말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INBP의 Jean-Francois Astier 학장은 “앞으로 INBP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한번 꿈꾸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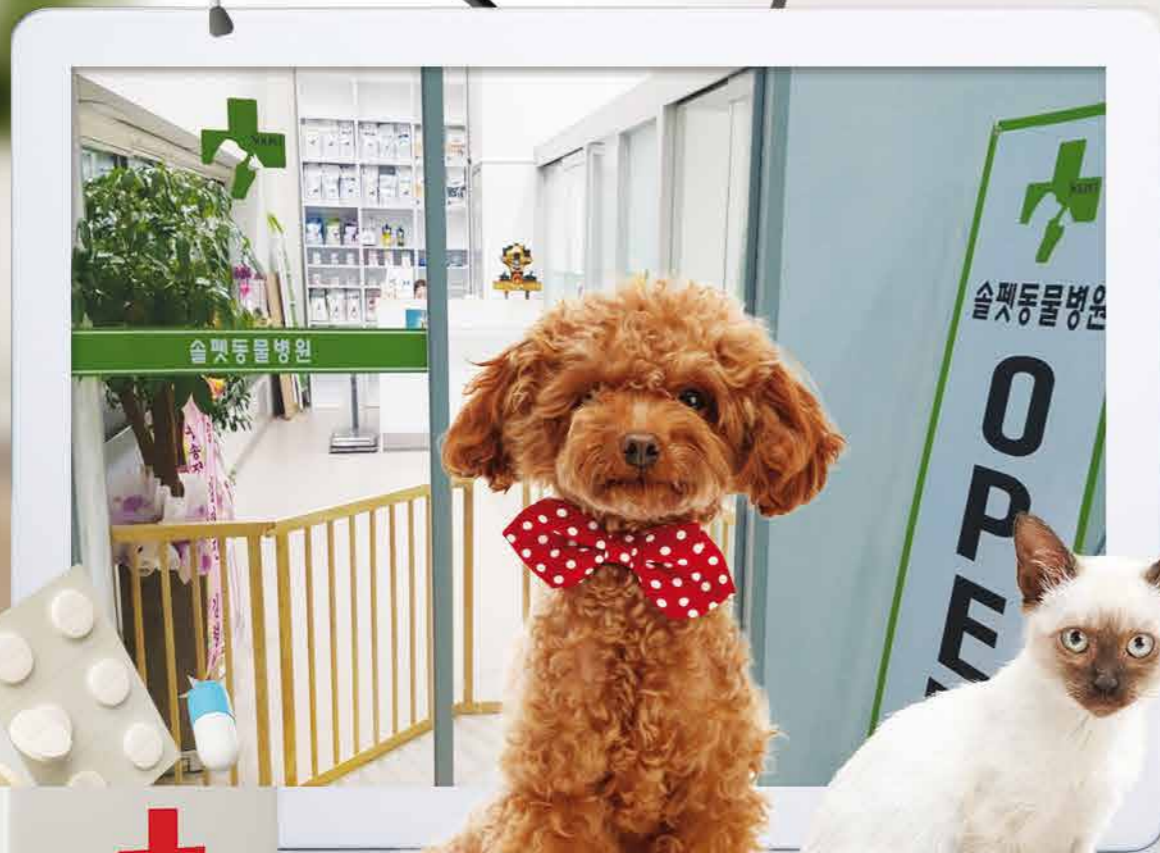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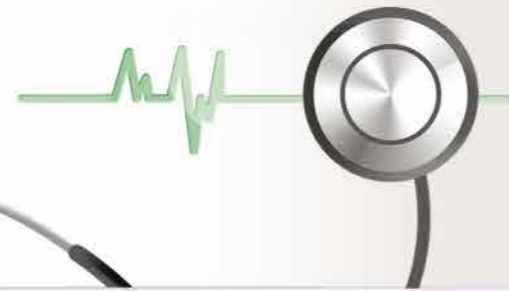
❖ 하정인 · 허윤녕 기자



‘솔펫동물병원’을 소개합니다.

꽃내음이 봄바람을 타고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따스한 봄을 만끽하기 위해 길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들이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너무나 마음 아프겠죠? 모든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는 ‘애견의료전공(2017학년도 신설)’ 책임교수이자 지난 10월에 개원한 ‘솔펫동물병원’의 책임자, 여세철 원장님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 허윤녕 기자



Q : ‘솔펫동물병원’ 개원을 축하드려요! 수의사를 꿈꾸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A : 감사합니다. 사실, 어릴 적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서 집에 데리고 온 것이 계기가 됐어요. 작은 병아리에게 ‘뽀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열심히 보살펴줬는데 얼마가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그때 평평 울면서 뽀약이와 약속했어요. ‘내가 커서 너처럼 작고 가엾은 동물들을 꼭 치료해줄 거야.’ 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 끝에 수의사가 됐어요. 제가 보기와 달리 마음이 어려워요... 하하.

Q : 동물병원에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찾아오나요?

A : 대부분 애완견과 애완묘가 찾아옵니다. 예방접종 및 검진, 질병·사고로 인한 내원은 물론이고 중성화 수술도 많이 하죠. 특히 저희 병원은 중성화 수술 부위가 작고 솜씨가 좋기로 유명해요.

Q : 이곳에서 학생들의 실습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A : 맞아요. 보통 방학이나 졸업 전 4주 동안 저희 병원을 포함한 서울, 충청지역의 동물병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Q : 최근 애견의료사업의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이제 한국도 반려동물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애견의료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 따라 그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애견의료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동물병원 운영에 있어서 수의사 뿐 아니라 수의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그 역할이 대두되고 있어요.

Q : 애완동물계열에 꿈을 품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 생사를 넘나드는 동물들이 나오 인하여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줍니다. 직업적 소명의식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마음이야말로 이 분야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Q :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 제가 맡은 학생들 모두가 어디에서든 신뢰받는 전문인으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것이 목표예요. 또한 제 소임을 잊지 않고 ‘솔펫동물병원’을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도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살아가며 ‘뽀약이’와의 약속을 꼭 이어갈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보살폈던 작은 병아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꿈을 이루어낸 마음씨 따뜻한 여세철 교수님! 그리고 수많은 반려동물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영원한 등대, ‘솔펫동물병원’을 지켜봐주세요~!



🔍 일취월장 취업토크 콘서트 Search

청년취업난이란 없다! '일취월장 취업 토크콘서트'

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 '졸업 후에 나는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2016년 기준 대한민국 20대 청년실업자 수 44만명.
대한민국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청년취업난'과 '실업'.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취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송정보대학이 나섰습니다!
이름하야 '일취월장 취업토크콘서트'

❖ 허윤녕 기자

FINDING JOB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 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기업인사팀 초청강연'이었는데요. 보안서비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에스원'의 인사과장, 'LGU+' CS리더 인사팀이 강단에 올라, 취업의 최대난관 '면접'에 대한 팁은 물론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도 본 행사에 참가하여 후배들을 위한 취업성공 노하우 및 대학생활방법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저는 이날 우송정보대학 우경환 취업처장님 덕분에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알게 되었어요. 상담사와 초기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은 후 이력서 작성부터 모의면접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막막한 취업생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배재훈 산학부총장님의 강연주제도 매우 신선했습니다. 바로 눈 앞에 놓인 과제들과 시험에만 급급해했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된 도서관 건물 밖,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Good Job 버스'를 통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고, 도서관 1층에서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취업'이라는 주제에 재미를 더해줄 무료 이벤트도 진행되었어요. 제가 직접 이벤트에 참가하여, 원하는 대로 작성해주는 캘리그래피 엽서도 받고 지문적성검사를 통해 제 지문을 통해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도 알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400여명의 재학생들과 함께한 일취월장 취업토크콘서트!
저 역시 취업생으로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들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준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강연을 통해 유용한 팁들도 얻어, '취업'에 대한 무겁던 걱정이 조금은 해소되었답니다.

우리들의 대학생활을 다시 돌아켜보며, 나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생들이 당연한 사회인으로서 발돋움하여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19



SMART CAMPUS

학교가 내 손안에! 스마트캠퍼스 파헤치기

여러분들은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캠퍼스”라는 어플을 알고계신가요?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캠퍼스”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편리하게 우리학교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성적 확인부터 강의시간표, 모바일 학생증까지 한 손에 쏙 들어온
 스마트캠퍼스 어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 이채원 기자



1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캠퍼스' 어플은 Android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ios는 App 스토어에서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캠퍼스'를 검색 후 설치 실행하시면 됩니다.



2 설치 완료! 어플을 눌러볼까요? 첫 화면은 로그인 화면이에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대학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로그인을 체크하면 어플을 실행 할 때 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함이 2배!!



3 로그인을 하면 알록달록한 화면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모바일 학생증부터 수업시간표, 열람실 좌석예약 까지!! 목록별로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함께 볼까요?



4 혹시 도서관에 가야하는데 학생증을 놓고 와서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모바일 학생증으로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한번으로 고민 끝!



5 시험기간 도서관에 자리가 없을까봐 불안하고 걱정되셨나요? 이제 스마트캠퍼스를 통해 열람실 자리를 미리 예약하세요! 수업 끝나고 급하게 달려갈 필요 없이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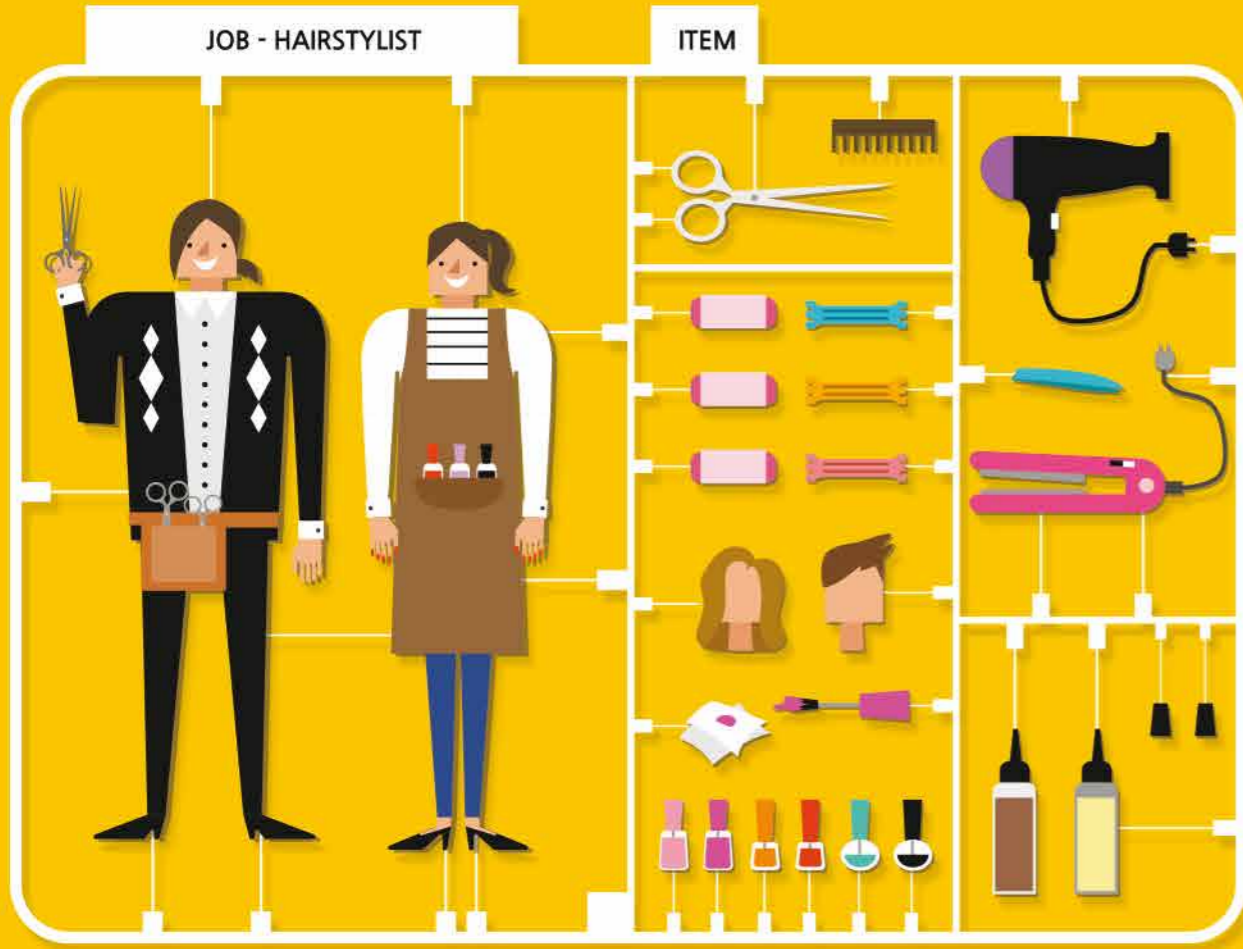
6 학사일정, 학생식당 메뉴, 통학 버스 시간이 궁금할 때에는? 역시 스마트캠퍼스 어플을 통해서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정말 편리하죠?



7 꼭 컴퓨터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성적확인, 장학금, 등록금 조회까지! 어플을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8 과제 제출이나 학습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LMS와 전자출석 기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스마트캠퍼스 어플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편리함을 한손에 담은 스마트캠퍼스 어플! 우리 모두 똑똑한 어플을 이용해서 편리한 학교생활을 해보아요!



맞춤형 교육으로 너희들의 취업을 책임질게!

❖ 이채원 기자

우리대학은 산업체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곧바로 해당 업체로 취업하는 이른바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약정형, 이름만으로도 감이 오시죠? 바로 취업을 보장한다는 의미예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시절에, 심지어 눈이 번쩍 뜨일 꿈의 기업에 취업이라니...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기업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그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 실무를 익혀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현재 다양한 학과에서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호텔관광과에서는 제주롯데호텔반과 대명레저반, 스마트경영학부(유통경영전공)는 삼성전자소매유통반이, 가계자동차설비학부, 리모델링건축과, 스마트로봇자동화과에서는 전문인력/실무인력 양성반이 운영되고 있고, 대기업 통신반(KT, SKT, LGU+), 대기업 운영반(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뷰티디자인학부에도 세계적인 헤어브랜드 준오헤어반이 있는데요.

현재 뷰티디자인학부 헤어전공의 학생들 30명이 준오헤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뷰티디자인학부의 김상은 교수님을 만나 뵈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뷰티디자인학부의 특별한 신입사원 양성 프로젝트 준오헤어반!

Q. 뷰티디자인학부(헤어전공)의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좀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을 위해 준오헤어에서 직접 강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물론 실무적인 테크닉, 서비스, 고객안내 등을 배우고 외부고객을 데리고 와서 직접 실습하는 살롱워크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주문식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우송정보대 뷰티디자인학부만 준오헤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인성 또한 훌륭하여 기업체에서도 우리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시나 정시 때 수험생들이 준오헤어반으로 인해 우송정보대학을 선택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으며 재학 중인 학생들도 준오헤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Q. 뷰티디자인학부의 주문식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성, 태도,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성, 태도, 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잘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 결승선이기 때문에 목표가 흔들린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준오헤어반에서 멋진 꿈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걱정? 이제 그만! 우송정보대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꿈 꼭 이루어내길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치과경영과'를 소개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기운에 고개를 든 길가의 꽃잎들이 너무나 반갑게 느껴지는 요즘,
2017년 우송정보대 신설 '치과경영과'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난 3월 14일 국제경영센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로부터 교육용 유니트체어
(치과진료대) 및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기증받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최초! 치과경영관리 최고 전문가를 위한 '치과경영과'를 소개합니다~!

❖ 허윤녕 기자



최근 치과병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치과 경영시스템에 따라 전문의료 인력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회계 및 보험급여, 인사관리 등 병원 운영에 있어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 및 행정분야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과경영과' 학생들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의 실습환경 속에서 치의학용어 및 의료경영학 등의 전공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1학년 계절학기 동안 종합병원 400시간, 일반병원 380시간의 현장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치과경영과 실습실인 SOL Dental Clinic에는 이번에 기증받은 유니트체어를 포함한 치과 환경이 심플하게 꾸며져 학생들의 실습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보험심사청구실습 등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치과경영분야의 치과행정 및 서비스교육은
물론 의료코디네이터 및 간호조무사 교육을 거쳐 병원코디네이터, 병원행정사, 간호조무사 및 보험심사평가사, 치과경영관리사(예정)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병·의원 등의 치과경영은 물론이고 보건직 공무원, 병원코디네이터, 공단 및 보험회사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
간호학과 또는 치위생 관련학과의 4년제 편입도 가능하다는 사실!
게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KDD),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DDA)와 산학협약을 맺고 치과경영 실무능력을 갖춘 최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몰심양면으로 노력중이라니 정말 든든하네요!

사회의 흐름과 수요에 발맞춰 국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탄생한
우송정보대 '치과경영과'. 치과병원 행정원장의 꿈을 지금 한번 이루어보세요!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끼러 피크닉 갈 시간도 없이, 이제 곧 시험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하여 어리둥절한 새내기들과 남다른 각오로 '과탑(Top)'을 노리는 모든 학우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만점 받는 비법!

❖ 허윤영 기자



▶ chapter 1. 노트법

'코넬식 노트필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벨상을 받은 졸업생만 2~30명이 되는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에서 1950년 학생들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개발한 노트 필기법으로, 실제로 효과가 대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 함께 그 방법을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이 노트의 영역을 나눈 후 '제목영역'에는 제목 혹은 주제를 적고, '필기영역'에는 수업 중 강의내용을 자신만의 기호나 약어 등을 이용해 빠르고 간결하게 받아 적습니다. 이때, 요점 사이에는 많은 공간을 두어, 이해를 돕거나 추가할 만한 보충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이후 복습에 활용하는 '요약영역'에서는 강의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및 전체를 짧게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단서영역'은 관련 도표나 전공용어, 참조할 만한 것들을 적기도 하고 핵심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문제를 내어보는 영역으로써 오른쪽의 모든 영역을 가린 후, 자신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집니다!

'코넬식 노트필기법'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기억의 잠금효과' 때문인데요. 강의를 듣는 동안 가능한 많은 내용과 아이디어를 적고, 강의가 끝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기록

함으로써 의미관계를 명확히 해주고 짧은 시간 내 기억이 잊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후, 단서 및 요약 영역만 보고, 내용을 줄줄이 암송하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암기하면 그 내용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chapter 2. 강의 복습법

강의시간, 핸드폰을 당당하게 꺼내어 음성메모를 통해 수업을 '녹음'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모든 강의내용을 다 받아 적으려고 해도 분명 빠뜨리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집으로 돌아와 녹음된 강의를 다시 들으며 미처 필기하지 못한 부분을 적으면, 복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죠?

(물론 강의 녹음하는 것은 담당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온라인에 올리는 건 안되겠죠? 공부하겠다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안되니까요~^^)



'녹음'을 이용해 수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싶은 이들을 위한 더 독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업시간 교수님의 말씀을 모조리 다 타이핑하는 것! 그 후 출력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읽도록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에 제가 들었던 강의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농담하시는 부분까지 다 받아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업 내용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힘든인 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게다가 여러 번 읽다 보면, '아 여기서 이런 농담을 하셨었지.'

하고 다음 이어질 내용이 저절로 기억나는 효과까지!

조금 힘든 방법이지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 chapter 3. 암기법

요즘 고시생 사이에서 책을 10번 정독하는 공부법이 유행인데요. 하지만 과제도 해야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돈독히 쌓으며 청춘을 만끽 해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방법이지요! 책을 10번씩 읽지 않고도 어려운 전공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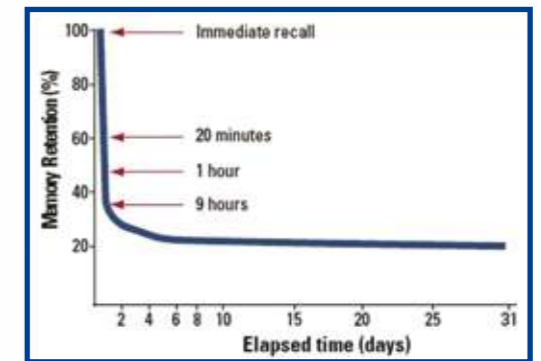
첫 번째, '오감각 기억법'입니다! 한번에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 공부하는 방법으로써 눈으로 책을 보는 동시에 손으로 따라 쓰며 소리 내어 읽으면 그 말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가게 되어 한 두개 감각을 사용해 암기 했을 때보다 기억력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작은 화이트보드와 함께 스스로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듯 공부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당연히 '반복'은 암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반복해야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망각이 진행되어, 1시간 뒤에는 학습량의 50%가 잊혀지고 한달 뒤에는 학습내용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 지라도 피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망각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인 반복!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10분-1일-7일-30일로, 10분 뒤에 배운 내용을 반복 학습하면 1일, 1주일 뒤 복습하면 한달, 한달 뒤 복습하면 6개월이상 기억이 지속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수업 직후, 곧바로 복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죠? '파란색 펜'은 세로토닌 호르몬을 유도하여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꿔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기 시 파란색 펜을 사용하면 뇌가 더 잘 기억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을 이어 나가는 끈기!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새 꿈의 정상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항상 노력하는 우송인들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모두 파이팅!

교양적인 느낌느낌

◆ 강은정 기자

새내기! 대학생! 이번 학기 그냥 보내실 계획이세요?
 험겨운 학점관리, 스펙 쌓기 위한 대외활동, 등록금 마련에 아르바이트까지 힘들지만!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게 공연&전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대전시립미술관으로 가 보아요!
 대전시립미술관의 봄맞이 전시는 대전의 원로작가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각 전시마다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니 노곤노곤 춘곤증이 물려올 때 쯤!
 춘곤증을 잊게 만들 공연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전 하면, 예술의전당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예술의전당에서 봄을 맞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1. 색채의 화음을 노래한 화가 이인영

일 시 : 2017. 3. 2 ~ 2017. 4. 26
 장 소 : 대전시립미술관 1전시실, 2전시실
 작 가 : 이인영

화가 이인영은 대전 미술계를 이끌고 있는 원로 작가입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과 재건이라는 시대상을 거처온 세대이자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여 자기세계를 확립해온 화가로 '색채 화음을 노래한 화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무수한 붓자국을 따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대전시립미술관 >



< 사진출처 : 네이버 명랑가족 블로그 >

2. 2017 넥스트 코드

일 시 : 2017. 3. 2 ~ 2017. 4. 26
 장 소 : 대전시립미술관 3전시실, 4전시실
 작 가 : 박은영, 신기철, 이흥한, 정미경, 정의철
 관람료 : 성인 500원, 학생 300원

<2017 넥스트코드>에서는 '우리 앞의 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각매체를 선보이며 대전을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작품을 전시합니다. PART I '생의 안으로'라는 주제로, 본인만의 조형언어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분투하는 박은영·신기철·정의철의 작업을 선보이며 PART II '생의 밖으로'에서는 자아 성숙과 예술적 시각의 '확장'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정미경·이흥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마다 특유의 감성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 현대적 감성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사진출처 : 대전시립미술관 >



< 사진출처 : 네이버 명랑가족 블로그 >

3. 염은초 밴드 공연

일 시 : 2017. 4. 11. 오전 11시
 장 소 :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티켓정보 : 전석 1만원(할인혜택 : 홈페이지 참고)

'리코더'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악기이지만, 연주하는 장면을 보긴 쉽지 않죠. <2017 아침을 여는 클래식 4월>에서 리코디스트 염은초의 맑고 청아한 리코더 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리코디스트 염은초는 2012년 독일에서 열린 <니더 작센 국제 리코더>에서 6명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완벽한 우승을 거두며 반향을 일으킨 라이징 스타로 '바로크계의 아이돌', '스테이지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 리코더계의 스타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음악이 삶이 되고, 삶이 음악이 되는 특별한 화요일 11시 공연을 매월 기획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특별한 화요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사진출처 :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

4. 수상한 집주인

일 시 : 2017. 6. 28. 11:00 / 19:30
 장 소 :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티켓정보 : R석 1만원, S석 5천원

"하!하!하!" 통쾌하게 웃어 본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각박한 세상에 치여 사느라 시원하게 웃는 방법을 잊은 당신! 여기 재미있는 풍자 코미디 연극을 공연합니다. 주인공인 에릭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내에게 그 사실조차 말도 못하는 우울한 날이 지속되고 그 때 신경통을 앓고 있던, 이미 이사를 가버린 2층 세입자 루퍼트 톰슨 앞으로 잘못 날아온 사회복지료를 챙기게 되면서 상황이 꼬여버립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꼬일대로 꼬여버린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순간은 있습니다. 그때 어두운 손이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관객들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극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의 등장으로 큰 웃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

BOOK

책을 소개합니다.

◆ 장은정 기자

1. 훌쩍 떠남



저자: 어슬렁(이미영), 출판사: 청림라이프

“여행 가자” 아빠의 말 한마디에 환호성을 치던 어린 시절. 여행은 가족과 함께해도, 친구와 함께해도 언제나 좋다. 여행을 계획 할 때 ‘훌쩍떠남’ 이 책 한편과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카메라가 없어도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다. 여행에서 만난 풍경을 펜이나 색연필로 끄적이는 재미도 있고, 영수증이나 축적사진 또는 휴대용 포토프린터로 인화한 사진, 티켓 등을 붙여 추억의 한 조각을 나만의 여행 책처럼 남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행 일정,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노트인 듯한 나만의 여행책! 그림을 못 그리려도 괜찮고 글씨가 엉망이어도 괜찮다, 여행하면서 끄적였던 책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기억한 설명과 감동을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2. 국가란 무엇인가: 훌륭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저자: 유시민, 출판사: 돌베개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위한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를 위한 태극기집회가 열려 팽팽한 대립관계를 이루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번 사건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국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저자가 2011년 발행한 『국가란 무엇인가』의 개정판으로 2017년판 국가론이다. 이 책은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가 담겨있으며 2011년 구간에 없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개정판에 실었다. 국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다면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3. 자존감 수업



저자: 윤홍균, 출판사: 심플라이프

당신은 혹시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 자책하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면의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책이다.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고만 있는 당신,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는 당신, 감정노동에 치여 사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좌절, 무기력, 열등감... 상할 대로 상한 자존감을 다시 복돋아 주는 말과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어 자신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고른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홀로 설 준비가 되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4. 너의 안부를 묻는 밤



저자: 지민석·유귀선, 그림: 헤란, 출판사: 시드앤피드

“당신의 사랑은 아프지 않은지?” 외롭고 쓸쓸한 새벽을 함께 지새운 다정하고 살뜰한 위로와 안부. 책 표지에 제목과 이 몇 줄 그리고 포근한 그림에 매료되었다. 또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다 그림과 글이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너의 안부를 묻는 밤』은 지민석과 유귀선 두 사람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써온 사랑과 이별, 위로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공유를 이끈 글들을 추려서 새롭게 다듬은 감성 에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잠 못 이루는 새벽녘에 고요한 방 안 책상에 앉아 감성적이고 싶을 때, 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첫사랑이 그리워 위로 받고 싶을 때, 외롭고 힘든 날 힘내라고 토닥이고 싶을 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아이가 나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5. 청춘의 돈 공부: 평생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20대에 돈 공부를 시작하라!



저자: 김성진, 출판사: 카시오페이

해마다 봄이 되면 새 책과 새 필기구, 예쁜 옷을 사기 위해 계획에 없었던 지출을 하게 된다. 나 또한 신학기에 그리 필요하지 않지만 욕심에 구입한 것이 조금 된다. 그럴 때마다 ‘쓸데없이 새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된다. 저자는 지난날의 자신처럼 밥벌이가 고되고 미래가 불안한 청춘들에게 ‘재테크 습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투자 시스템’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새는 돈을 관리하고 소비습관을 바로잡는 비결에서부터 ‘1억 원을 만드는 5년 플랜’, 재테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실제 투자지침까지 모두 낱알이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평생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은? 지름신이 강림해서 불필요한 지출한 적은? 저자처럼 10억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거나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 또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 또는 직장인에게 재테크 입문서로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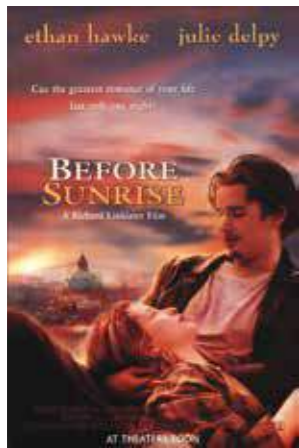


봄

에 감상하면 좋은 영화

따뜻한 햇살이 두 뺨을 감싸고 은은한 봄향기가 코끝을 쓸고 지나가는 봄... 새로운 여행지에 첫 발은 내딛은 듯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푼 채, 진짜 나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향긋한 연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나의 연인' 혹은 곧 다가올 '나의 연인'을 위한 로맨틱 영화를 소개합니다!

❖ 허윤영 기자



< 비포선라이즈(Before Sunrise, 1995) >

미국인 제시(에단 호크)가 프랑스인 셀린(줄리 델피)과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강한 끌림 속에 낭만적인 도시, 비엔나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비엔나 곳곳을 걸으며 계속되는 그들의 삶과 인생관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영화를 더욱 '낭만적'으로 물들여주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포 선라이즈'에는 로맨스 영화에 흔하디 흔한 키스신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풋풋하고 보는 사람조차 찢릿찌릿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둘은 해가 떠오르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며 6개월 뒤 만남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스토리가 끝나고 텅 빈 비엔나의 낭만적인 거리들을 끝으로 영화도 막을 내리는데요. 이 둘의 이야기는 '비포선셋', '비포 미드나잇'에 계속 이어집니다.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 이터널선샤인(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2005) >

재작년, 슬슬 남자친구와 권태기를 겪고 있던 찰나에 재개봉 소식이 들려 한결음에 영화관으로 달려가게 했던 너무나 유명한 로맨스 영화. 연인과 쌓여가는 추억과 기대만큼 서로에 대한 서운함, 미움, 원망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조엘(짐 캐리)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에 대한 아픈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추억'을 마주보며 기억 지우기를 거부하고... 먼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워버린 클레멘타인은 이후에 조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여운이 남고, 보면 볼수록 가슴으로 와닿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연인의 소중한 흔적을 깨닫고, 지나간 옛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로 추천합니다!



< 어바웃타임(About Time, 2013) >

혼자 열렬히 짝사랑만 하다 끝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없나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순간들... 하지만 '어바웃타임'의 남자주인공 팀(도널 그리슨)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 없는 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 뒤, '모태솔로' 탈출하기 위해 누가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 메리(레이첼 맥아담스)를 쟁취하기 위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녀와의 매순간들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리하여 메리와 알콩달콩한 사랑에 성공한 팀! 하지만 예상치 않은 곳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로맨틱한 장면 그리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영화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 노트북(The Notebook, 2004) >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으로 '노트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일곱 살의 노아(라이언 고슬링)는 우연히 카니발에서 엘리(레이첼 맥아담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 노아의 순수한 모습에 그녀 역시 마음을 빼앗겨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시, 가난한 노아에 반해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엘리는 부모님의 반대에 못이겨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노아는 한결같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1년동안 365통의 편지를 보내지만 어쩐지 단 한통의 답장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만에 재회한 그들...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사랑을 담은 영화 '노트북'. 영원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MOVIE

축제, 같이 가실래요?

꽃샘추위까지도 밀어내고 따스한 햇살이 설레게 하는 봄이 왔죠. 움추렸던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콧바람을 뿜어 떠나고 싶은 마음~ 화사한 봄날 친구들, 연인과 함께 1년에 단 한번 느낄 수 있는 봄나들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장은경 기자



1. 금강로하스축제 - 로하스 벚꽃 뮤직페스티벌

사진출처 : 로하스 벚꽃 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

< 봄나들이 취향대로 즐긴다는 벚꽃일이 >

봄 하면 벚꽃, 벚꽃 하면 떠오르는 벚꽃축제. 올해로 6회를 맞는 금강 로하스 벚꽃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봄 향기처럼 달콤한 노래와 함께 벚꽃의 자태를 만끽할 수 있는 '로하스 벚꽃 뮤직페스티벌'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일원과 KT&G 신탄진공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벚꽃개방행사 및 체험부스(벚꽃 타투체험, 에코가방 만들기 등)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뮤직페스티벌을 기획하고, 공연에는 어반자카파, 정승환, 불빨간 사춘기 등 많은 가수들이 온다고 하니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은 go!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하는 힐링 컨셉의 뮤직페스티벌로 떠나보아요~



2. 대전 칼국수축제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대전 중구청 블로그

< 정감있는 손 맛을 느낄 수 있는 칼국수 축제 >

칼국수는 근대사회 이전엔 우리나라에서는 귀한음식이었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쉽게 접하고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전 칼국수 축제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전 곳곳의 칼국수 맛집을 만날 수 있으며 칼국수의 역사와 칼국수 이야기, 칼국수 레시피 등 유익한 정보 제공을 한다네요. 게다가 칼국수 빨리먹기, 칼국수 OX퀴즈, 밀가루 박 터트리기 등 체험거리와 칼국수 3색 공연, 지역예술단 주간상설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밀가루인형 만들기, 칼국수 만들기 등 무료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친구와 연인과 함께 다녀오시면 든든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3. 계곡산맨발축제

사진출처 : 계곡산 맨발축제 홈페이지/ 맥키스컴퍼니 홈페이지

< Healing Feeling Barefoot Festa >

계곡산 맑은 공기와 맨발로 부드러운 황톳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연과 사람이 이어주는 축제가기 때문일까요? 계곡산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여행지에 선정되었습니다. 계곡산맨발축제는 숲속을 맨발로 걸거나 달리는 세계유일의 맨발축제로 5월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계곡산 황톳길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엽서보내기, 나만의 맨발도장체험, 황토염색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숲속무대에서는 재미있는 맥키소페라 뽀뽀(fun fun) 한 클래식 공연을 하니 함께 가봐요~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건강한 황토와 청량한 계곡산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 '계곡산 맨발축제'로 오세요~



4. 유성온천 문화축제

사진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 쌓인 피로 날리러 유성온천으로! >

'천년 온천 유성의 천가지 즐거움'이란 주제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마다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24회를 맞은 유성온천 문화축제는 '온천으로 Jumping! 즐거움으로 Heal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갑천면, 계룡스파텔, 온천로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온천로에서 개막식길놀이를 시작으로 거리퍼레이드와 물총대첩, 온천수 DJ파티(DJ 박나래), 온천수 마사지 체험, 대전대 한방건강 체험, 추억의 7080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같이 참여하여 힐링도 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1석 2조의 축제! 세월이 지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유성온천문화축제'로 놀러오세요!



봄맞이 우수인들을 위한 꿀 피부 꿀 팁!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는 피부! 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아무리 관리해도 사라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트러블까지!
 피부과를 방문하자니 돈이 부담되고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피부의 겉부터 속까지 짝 채운 셀프 스킨케어!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 이채원 기자



◆ 1 단계 : 클렌징 법 점검하기!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귀찮아서 클렌징을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늦어지는 클렌징은 모공을 막고 건조하게 만들어 피부노화와 여드름을 유발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잘못된 클렌징 습관을 고치는 것이 꿀 피부 만들기의 시작점! 그럼 지금부터 피부타입 별 올바른 클렌징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성 피부

- 특징
과다 분비된 피지와 각질 때문에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피부
- 세안 시 사용하면 좋은 제품
유분감이 적고 수분이 많은 클렌징 젤 & 워터, 클렌징 폼
- 세안 법
클렌징 젤, 워터를 이용하여 1차 클렌징 후 거품망을 이용해 거품을 많이 내어 모공 깊숙이까지 이중세안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

건성 피부

- 특징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며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어야 하는 피부
- 세안 시 사용하면 좋은 제품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클렌징 오일 & 크림, 클렌징 폼
- 세안 법
클렌징 오일 또는 크림을 이용하여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클렌징 하는 것이 가장 중요! 1차 클렌징 후 클렌징 폼으로 거품을 많이 내어 이중세안을 해주면 청결함은 2배로 up! 단 손으로 너무 세게 얼굴을 문지르면 과도하게 유분이 닦여나가 세안 후 건조함을 유발 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복합성 피부

- 특징
건조함과 유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T존은 지성 U존은 건성인 경우가 많은 피부
- 세안 시 사용하면 좋은 제품
건조함과 유분감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클렌징 오일 & 워터
- 세안 법
T존은 클렌징워터, U존은 오일을 사용하여 따로 클렌징을 해주면 건조함과 유분감 고민 끝!
1차 클렌징 후 클렌징 브러쉬를 이용하여 2차 세안을 해주면 더욱더 꼼꼼한 세안이 가능!

민감성 피부

- 특징
피부가 얇고 예민하여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트러블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
- 세안 시 사용하면 좋은 제품
순하고 수분공급이 같이 되는 클렌징워터
- 세안 법
피부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클렌징 워터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세안하고 클렌징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포인트!



◆ 2 단계 : 화장품 속 유해성분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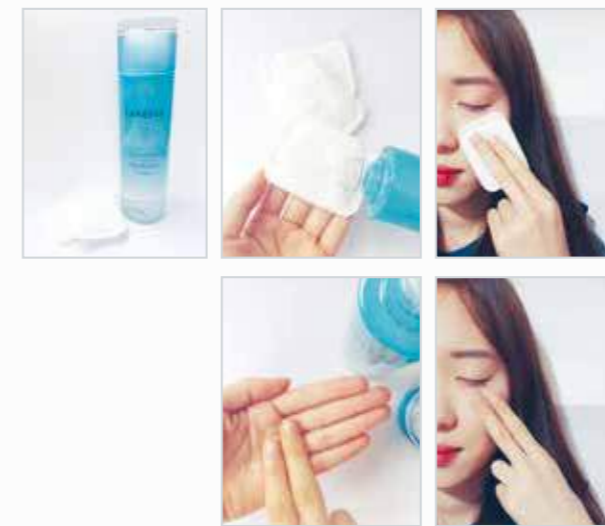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많은 성분들! 그 중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피부의 적이 되는 유해성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트리콜리산 등이 대표적인 유해성분인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암, 알레르기 등 각종 피부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분은 EWG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EWG 등급은 미국의 환경단체에서 화장품 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합니다. 피부에 가장 이상적인 등급, 보통, 피부에 유해한 등급으로 분류 되어 있고 수치가 낮을수록 피부에 안전한 성분입니다! EWG 등급에 따른 유해성분은 식약청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본 후 내 피부에 맞는 인생템을 찾아 꿀 피부를 만들어 보아요!



출처 <http://saltpharm.blog.me/220838104721>

◆ 3 단계 : 7스킨법으로 수분 가득한 피부 만들기!

7스킨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피부 속까지 채워주는 7스킨법이 이슈인데요. 7스킨법이란? 스킨을 7번에 걸쳐 흡수시켜 피부 속 깊은 곳 까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친 피부에 수분을 가득 채워주고 방법도 간단해서 연예인은 물론 일반사람들도 즐겨하는 7스킨법! 지금부터 우리 같이 따라해 보아요!



- ① 세안 후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을 따라 닦아냅니다. 여기서 꿀 팁! 7스킨법에 사용하는 스킨을 고를 땐 건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알코올이나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고 유분 함량이 적고, 빠른 흡수를 돕는 물 같은 토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손에 적당량을 덜어서 지그시 누르듯 흡수시켜주면 끝! 이때 세게 두드리거나 문지르지 않기! 깨끗한 손으로 피부자극을 최대한 줄이며 살살 발라주세요! 이 방법대로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매우 간단하죠?

하지만 7스킨법이라고 무조건 7번을 다 바를 필요는 없어요! 횟수보다는 충분한 시간동안 길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 자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적당하게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고영양 에센스나 스킨을 사용할 때에는 피부가 이를 다 흡수하지 못해 여드름이나 트러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안법 점검부터 유해성분 확인, 7스킨법 까지 누구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올바른 셀프 스킨케어! 우리 모두 올 봄 꿀 피부에 도전해 보아요!





새학기, 아르바이트 찾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한만큼 정당한 권리를 받으면서 알바합시다!

❖ 하정인 기자

알아야 산다! 아껴야 산다!

<알바생 편>

1. 최저시급은 6,470원! (2017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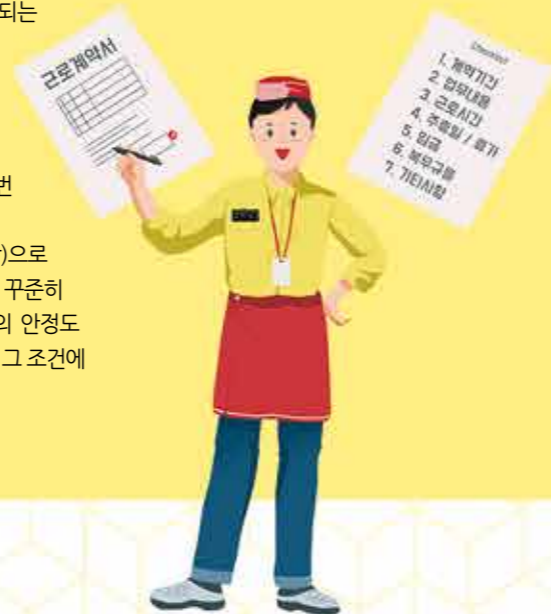
잊지 말자. 최저시급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근로 환경은 NO! 혹여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장님이 계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다.

2.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시급만큼 중요한 부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한다! 파트타임 4명의 알바생과 점장이 일하는 한 편의점을 본다면 총 5명이 일하는 셈! 즉 점장님은 파트타임 알바생들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에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 이 또한 지키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이어져 노동부에서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하루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8시간을 훌쩍 넘어 근로하는 학생들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장님과 알바생 간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케이스다. 여기서 받는 수당은 초과근로수당이라 부르는데 이것 또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꼭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억울하게 일 하고 돈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자!!

3.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흔히들 4대 보험은 경직원이 아니라면 등록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바 또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4대 보험은 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자!
알바생은 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고, 1개월에 60시간 이상(1주 기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꾸준히 임금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지만, 미래의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편이 더 낫다. 알바를 구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자!



원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 타지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많죠.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는 것이 힘!

<자취생 편>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물주와 부동산 거래자의 명목이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보자! 건물주와 집주인이 다른 경우, 혹은 부동산 계약 시 건물주와의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 향후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법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2. 에코마일리지 제도 (서울 외 지역은 탄소포인트제도)

이 제도는 6개월 간 가정 내 전기, 수도, 도시가스 합산 사용량을 감축 시 연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절약을 통해서 적립된 마일리지(또는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하고 5% 이상 절약을 하면 1만 마일리지, 10% 이상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주변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실명인증과 주거형태, 고지서 정보 기재만 하면 되니 얼마나 간단한가! 공과금도 아끼면서 돈도 받고, 일석이조! 한 번 실천해 볼까?



3. 월세 환급 제도

자취생들이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세입자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의 근로소득자로 25.7평 미만의 세입자는 신고 가능! 이 경우에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월세를 환급해준다고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자료 등 세가지 서류를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청! 여기서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므로 미리 알아두면 작성할 때 편리하다. 혹시 과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5년 안에 신고를 한다면 소급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취업 후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참! 전입신고 이후의 지출된 월세만 인정되니 전입신고는 필수겠지?

치매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카르페디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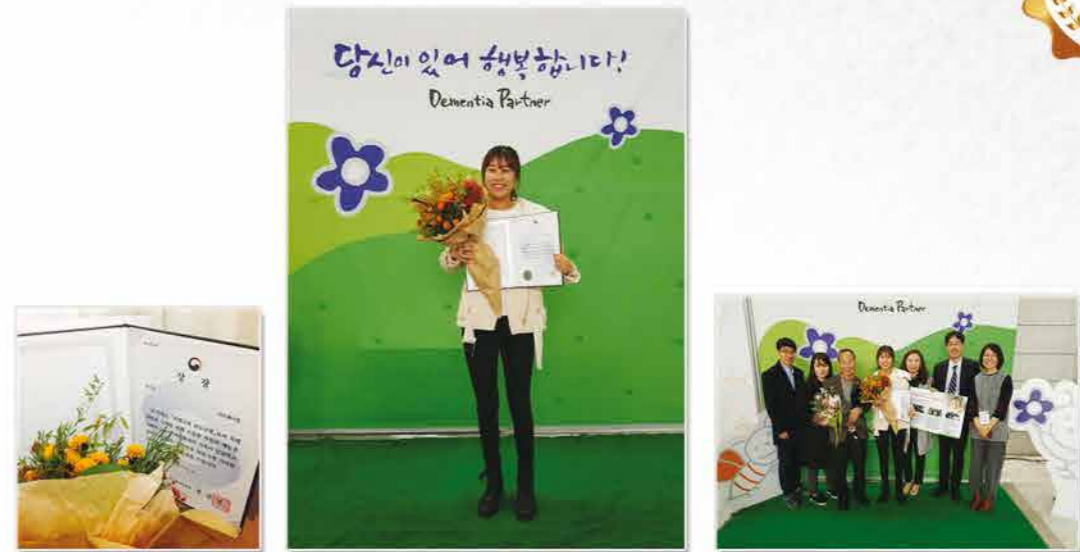
지난 11월, 우리학교 동아리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수소문 끝에 바로 간호과 카르페디엠 동아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동아리 활동만으로 장관상을 받을 수 있다니.. 궁금증이 생겨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카르페디엠은 2014년부터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연계해 치매극복 선도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라 하죠. 자신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병이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를 가벼운 노화과정으로 생각한다면지 불치병으로
잘못 인식하여 치매 환자의 절반이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 예방사업과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거겠죠.



국가에서도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주관한
'2016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이 열렸고, 카르페디엠이 우수 치매 파트너즈 단체 부문에서
무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거죠!

❖ 이채원 기자



*궁금증을 가득 안고 카르페디엠을 이끌고 있는
간호과 2학년 현우진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Q. 카르페디엠 동아리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카르페디엠 동아리는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극복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는 SNS로 소통하고 캠퍼스 안팎에서
직접 발로 뛰며 꾸준히 치매 관련 교육을 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Q.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러 대학에서도 치매파트너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
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다른 동아리들의 활동 현황도
알아보고, 그동안 저희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보고도
싶었어요. 저희가 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알리려고 노력
한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후배들에게 선배의
업적(?)을 남기고, 지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
안의 활동을 보기 쉽게 정리해온 자료들도 같이 제출
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인 것 같아요.

Q.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로 배운 점이 있었나요?

학교에 입학하고 동아리에 들어갈 때에는 막연하게 봉
사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워크숍을 준비하다보니 인맥도 넓어졌고, 카르페디엠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뿐 아니라 파트너즈로서 책임감
도 생긴 것 같아요. 워크숍에서 만났던 전문가분들을
보니 아직 저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
다보니 전문지식을 더 쌓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노력할 생각이구요!

Q. 우승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공모전인줄 모르고 도전하게 되었
어요. 하지만 이왕 지원하게 된 거 수상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운 좋게도 대전 대표로 우리
학교가 뽑히게 되고 이어서 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믿기지 않아요. 졸업 후에도 후배들과 치매파트너즈에
대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소통할 생각이구요.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우송정보대학 카르페디엠 동아
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랑스러운 우송인!

김민아 언어재활사



공공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햇살 좋은 오후,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숲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강태산으로 향했는데요. 초입부터 이어지는 메타세콰이어가 과연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높고 길게 뻗은 단정한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따라가다보면 중증장애인시설인 한걸음을 만날 수 있답니다. 단정하고 귀품있는 그곳과 어울리는 김민아 선배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3년차 언어재활사로 근무 중인 김민아 선배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볼까요?

❖ 이채원 기자

Q. 언어재활과를 선택하고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어려서부터 막연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은 제가 희망이 된다는 걸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로 탐색을 하던 중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어린 사촌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제가 마음을 두었던 아이가 언어발달이 느렸습니다. 진로를 확고히 결정한 것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입학할 희망하면서 여러 차례 교수님께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말엔 알수록 끌리는 매력으로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Q. 전반적인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A. 처음에는 생각보다 공부 어려워 좌절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했기에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언어재활 관찰과 실습 과정은 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이 알아야 대상자들에게 정직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단숨에 습득해야했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이 모르면 사이버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다그치는 교수님들 덕분에 야간까지 이어진 특강과 자율학습을 하며 '아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느끼는 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3학년 때에는 성적장학금도 받을만큼 언어재활에 대한 제 의지만큼은 높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총무처 근로학생도 경험하면서 사회생활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나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저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했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필기해 두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서로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공부법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취업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A.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언어재활사가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별 특성을 알아보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입이지만 열정과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채찍질하며 제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Q. 현재 언어재활사로 계신 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A.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속해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걸음은 장애등급 1, 2급을 가지고 있는 15세 이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설입니다. 주로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이들이고, 약 50명 중 20명 이상은 움직임이 자유롭게 못한 침상 아이들입니다. 일반식 및 일반죽을 섭취하는 아동들도 있으나 유동죽 또는 경관급식으로 식이섭취를 하는 아이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Q. 중증장애시설에서 언어재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언어치료를 주 업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아동발달센터와는 다르게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언어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목욕보조나 식이보조 같은 보육 일도 함께 합니다.

Q. 이번에 우수 직원으로 뽑혀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저는 상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미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저보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제가 받

아도 되는 상이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성실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우수 직원으로 뽑힌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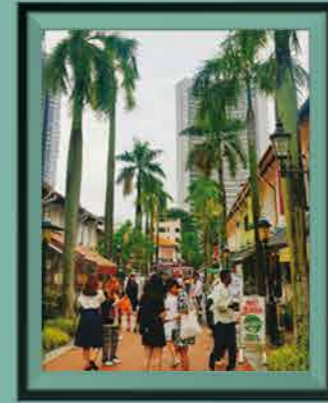
A. 비결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지만 인내와 배려 그리고 친절, 이 세 가지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태도를 잊고 지낸다면 힘들겠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도 먼저 나서서 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A. 자신의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꿈을 향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아침햇살처럼 환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있기에 밝음을 느낄 수 있듯이 현재 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여유가 된다면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느끼는 마음의 힘이 크고 따뜻하기에 먼 길을 달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SINGAPORE



MELTING POTS, WELCOME TO SINGAPORE!

매일 같은 일상의 레퍼토리가 지겨울 때쯤, 정말 운이 좋게도 '영어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지난 겨울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총 4박 5일의 여정동안 나를 포함한 언어재활과, 뷰티디자인과 학생들과 원어민 교수들이 함께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두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호텔 픽업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갔다. 생명력 넘치는 커다란 아열대 식물과 숨이 턱 막힐 듯한 습한 공기는 햇빛은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쌓인 한국의 겨울풍경과 대조되어 더욱 이국적으로 느껴졌다.

매일 아침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학교에서 전공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다. 홀로 배낭여행을 계획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외 학교를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그간 잊고 지냈던 설렘을 흥분 느끼며 그곳을 찾았다. 언어재활과 학생인 나는 ITE의 사회복지과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향후 나의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TE 강의실은 어느 대한민국의 대학교와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다. 한국식 대학교육에 철저히 길들여진 나에겐 다소 유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수업방식. 단어카드 맞추기, 그림그리기 등의 그룹 활동이 수업의 주를 이루었다.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수업에 나도 함께했다. 잠시 후, 수업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세상 열심히 단어카드를 맞추고 있는 내 자신이 웃길 정도로 그곳의 학생들은 어려운 전공용어와 지루한 이론들을 너무나도 즐겁게 익히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외국 학교가 그렇듯 개방적인 분위기 속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자유로운 수업방식은 사뭇 부럽기까지 했다.

오후에는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다 함께 움직였다. 그 작은 섬나라에 지구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발을 내딛을 때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차이나타운'에는 새빨간 홍등, 중국풍 인테리어 소품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아랍 스트리트'에 가니 황금색 '마자드 술탄'사원이 기압, 차도를 쓴 여인들과 어우러지고 거리에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올 듯한 화려한 인도풍의 양탄자, 다채로운 스테인드글라스 전등과 향수병을 파는 상점들이 인도 특유의 향취를 풍기고 있었다.

둘째날, 학생들의 제의로 '센토사섬'에 위치한 '싱가포르 유니버설스튜디오'에 갔다. 그곳에서 꼭 타봐야 한다는 '트랜스포머' 4D 놀이기구는 한국에 있는 입체상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생해서 서먹하지만 했던 원어민 교수님의 팔을 붙잡고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심 없이 빨라서 미치도록 짜릿했던 롤러코스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마다 각기 다른 놀이기구와 건축물들이 변화무쌍한 싱가포르를 꼭 닮아있었다.

하루가 바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마지막 학교수업을 마치고 그새 정이 들어버린 ITE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싣 후, 학교 측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편히 관광차에 짐을 싣고 현지에서 계시는 가이드분의 안내를 받아 차를 타고 싱가포르의 명소를 돌았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머라이언 파크'의 '머라이언상(Merlion Statue)'. 상반신은 사자(lion), 하반신은 물고기(인어:mermaid)형상을 갖고 있어서 붙여진 석상의 이름이다. 그가 입에서 내뿜는 물을 받아먹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하늘로 쳐드는 포즈를 취한 채, 기념촬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모두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멀리서 보니 조금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지만 나도 그 중에 한명이 되어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가 자취를 감춘, 저녁... '나이트 사파리'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 절대 없는 것. 바로 '우리'. 동물들을 가둬놓는 철장이나 유리벽 없이, 컴컴하고 넓은 숲속을 트램(tram)을 타거나 산책로를 통해 직접 걸어서 하이에나와 코뿔소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남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트램을 타고 큰 소리를 내거나 플래시를 켜지 말라는 나그나그한 안내음성을 들으며 긴장 속 동물들과의 만남 후,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부엉이와 난생 처음 보는 동물들을 어깨에 올리고 관객석을 일일이 돌아다녀주는 '생생한' 동물 쇼를 끝으로 '나이트 사파리' 체험은 아쉬움을 남기고 끝이 났다.

누군가 나에게 '싱가포르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라고 묻는다면... 단숨에 '음식이요!' 라고 답할 것이다. 친숙한 떡볶이 국물 맛이 나던 '칠리크랩'.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가루가 튀긴 새우랑 잘 어울린 '시리얼새우'. 간장소스에 스팀으로 닭고기를 익혀 부드러운 '치킨라이스'. 버터와 카야잼이 잔뜩 발라진 중독성 마왕 '카야토스트'... 역시 여행의 가장 큰 모미는 '먹는 일'이 아닐까 싶다! 연이은 '먹방'에 그치지 않고 오는 항공편에서 싱가포르 칵테일, '슬링'을 마셨다. 연한 다홍빛의 칵테일이 여독을 풀어주었는지 금세 잠이 들었다가 잠시 후 눈을 떠보니 비행기의 작은 창문 너머로 오랜만에 보는 듯한 새하얀 눈이 땅 위로 동토히 쌓여있었다.

흔히들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싱가포르를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s)'라고 한다. 작디 작은 섬나라 속에 무수히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신비한 나라, 싱가포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삶의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배낭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던 그곳에 다녀오라고 자신있게 권하고 싶다.

❖ 허윤영 기자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의 영광

추웠던 겨울을 녹일만큼 뜨거웠던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게 된 이마고(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김수연, 김승영, 박현서, 홍지영)!
치열했던 경진대회 후에는 달콤한 일본 여행이..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승부를 겨뤘는지 대상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창업에 한발짝 다가서기 위해 일본에 시장조사를 다녀왔다고 하니 그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 하정인 기자



Q. 벤처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참가하였나요?

A. 저희는 헤어샵 미러형 디스플레이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헤어샵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헤어 시술 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게 기본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시술하는 시간과 대기 시간 동안 다양한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지루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생각을 했어요.

Q. 그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와 준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 평소 헤어샵을 이용할 때 제가 원하는 헤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술을 했는데요. 스타일링을 마치고 난 후 어울리지 않는 일이 발생 하는 걸 막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수업 중에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기술을 알게 되어서 디지털 사이니지와 헤어샵을 접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창업 워크샵을 들으면서 얻은 지식들과 팁을 가지고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헤어샵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Q.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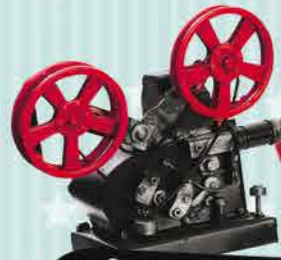
A. 대상을 받긴 했어도 창업은 아직 생소한 분야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요. 인상 깊었던 점은 각 학과별 동아리마다 전공을 잘 살려서 개성 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소개해줘서 자극을 받았구요, 발표할 때에도 창업아이디어와 관련된 복장을 갖추고, 재치있는 PR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Q. 일본에서는 어떠셨나요?

A. 일본은 실용적인 제품이 많잖아요. 주로 인테리어 소품을 구경했는데, 우리와 같이 미러형 디스플레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아이디어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유층 보다는 일반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에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좋았고 우리의 창업 아이템인 미러형 디스플레이를 100% 구현한 거울도 전시가 되어있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짧은 일정을 소화하기엔 아쉬웠던 3박 4일의 일정이었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Q. 마지막으로 추후 경진대회에 참여할 학우들을 위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의 팁, 알려주세요~

A.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 하지 말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생각해보고 보완할 점을 찾으면 찾기 쉬운 거 같아요.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느꼈기 때문이죠.



2017 우송을 기대하다!



나무 심는 날인 4월 5일 식목일, 우송예술회관에서도 새내기들의 마음에 한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새내기들을 돕고 응원할 제 33대 총학생회 '온새미로'와 상임대의원들의 출범식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로 선택된 총학생회 임원 7명과 대의원의장을 비롯한 29명의 상임대의원들이 한명씩 소개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떨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끌 임원들의 의젓하고 등직한 모습은 역시 우송정보대학의 대표다운 면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내기들도 빠질 순 없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치열했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친구들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예선이 치열했다는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솔로 무대부터 댄스, 밴드까지! 분야 또한 다양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예술제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거기에 열기를 더해줄 글로벌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 듀엣무대부터 상큼한 걸그룹의 무대까지! 눈과 귀, 모두가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우정예술제. 여기에는 우리 새내기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주옥 이렇게 즐겁게 하나되는 우송정보대학이기를 기대합니다.



- 총학생회장 전격 인터뷰 -

우정예술제가 막을 내리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중에도 학생들의 안전과 행사 마무리를 위해 분주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던 학생간부들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재훈 학생회장을 만나 33대 총학생회의 17년도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Q. 학생회 임원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과 임원을 하면서 학우들이 힘든 일이나 건의사항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학생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 만큼,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잘 듣고 전달하고 해결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싶어 총학생회 임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Q. 이번 총학생회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온새미로’입니다. ‘온새미로’는 ‘자연 그대로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공약인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소중한 돈을 깨끗하게 쓰는 것, 그리고 간절히 제가 학생회 간부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가짐을 잘 지켜 처음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학생들 곁에 있고싶다는 의미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봉사하고 열심히 할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 잘 사용하기 위해 항상 경청하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Q. 학생의 입장으로 바라본 학교와 간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이기에 할 때에는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도 막상 간부가 되고보니 일 진행에 있어 많은 책임감과 명분도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꼼꼼히 대비해야 하는 점 등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어깨가 무겁네요.

Q.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우송정보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회장이 아니라 언제나 편안함을 주는 형, 동생, 오빠 사이로 지낼 수 있는 친근한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깨가 무겁고 힘든 자리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한 임원들을 위한 박수 한번 어떨까요?
학생회 임원 여러분, 올해도 우송정보대학 잘 부탁드립니다!

◆ 장은정 · 하정인 기자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The-K호텔서울 임병설 총지배인님을 만나다!

따스한 봄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리는 봄날, 우송정보대학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특1급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시는 임병설 선배님입니다.
흰칠한 키에 말끔한 인상이 눈에 띄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라니..
온화하게 웃는 표정으로 건네는 인사에서도 몸에 베인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호텔리어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랑스러운 행보를 보여주는 선배님을 함께 만나볼까요?

❖ 장은정 기자



Q. 그 시절, 호텔리어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을 선택할 40여년 전만 해도 관광 분야가 생소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차여행하며 우연히 봤던 잡지에서 유망직종으로 소개된 호텔관광 분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호텔관광 전공이 개설된 학교가 서울에 한두 개만 있었을 뿐 중부권 최초의 대학은 바로 우송정보대학이었죠.

Q. 어떻게 총지배인 자리까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981년에 입학해서 1986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 후 “나는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서울로 가야겠다.”는 마음에서 무작정 상경해 리츠칼튼호텔에서 호텔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지금의 The-K호텔서울로 이동하여 객실과 프론트데스크에서 근무하다가 주경야독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26년간 인사, 총무, 경영 기획, 객실, 판촉 등 관리업무에서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으로 호텔 전반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호텔 경영 매니지먼트 컨설팅업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 근무를 나가기도 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호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총지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진 않았지만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쌓아온 실력이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Q. 호텔리어의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어린 인사를 강조하고 싶어요. 인사는 서비스의 시작과 인간관계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인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전에 만났어도 오후에 두 번, 세 번을 만났어도 한결같이 인사하는 모습에 일 잘한다

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인사만으로 직원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인사를 할 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웃음) 더불어 중요한 것이 애사심이에요. 호텔리어는 어학능력, 서비스 마인드, 실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과 근무하고 있는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Q. 호텔운영에 있어 총지배인님의 가치관을 알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호텔리어는 24시간 언제라도 고객들과 마주하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호텔 내에는 객실, 컨벤션, 웨딩, 식음, 레저 등 다양한 파트로 나뉘는데, 다양한 파트 간 원활한 소통이 있을 때 고객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호텔리어는 외국인 고객을 맞이해야하는 직업이에요. 때문에 외국인 고객을 맞이해도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예전에 영어 학원을 다니는 김에 일본어 학원을 같이 다녔었어요. 어느 날 외국인 고객이 오는데 인사는 할 수 있었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예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멍해져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웃음) 그 때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외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해외여행, 해외연수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Q.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학과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보다 먼저 행동해야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기회를 잡았다면 뚜렷한 주관으로 결정할 길 바래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성실한 자세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게 열심히 사는 게 정답입니다.”라는 선배님. 선배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후배를 향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성실함과 실력으로 열정을 이어가는 선배님을 보며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송정보대학,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MBS, 뉴스1코리아> 2016년 11월 30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11월 29일 교육부로부터 '2016년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국가가 다수의 기관을 체험센터로 선정해서 자유학기제에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송정보대학은 체험기관 및 체험처 성격,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등 3개 영역 10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3년 동안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 멘토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은 2016년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다양한 교육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진행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16개 프로그램을 총 72회 운영하여 16개 중학교 1,632명 참여하였고 또한 고교생들에게 학과 전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9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고교생 초청 학교전공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국 고교생 469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60년 넘게 축적된 특성화된 교육시스템, 모든 학생들이 '한국대표 명장'으로 양성되는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기부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훌륭한 진로체험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 자유학기제 유공기관 표창패 수여기관 선정

<MBS, 뉴시스,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뉴스1코리아, 중도일보> 2016년 12월 14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016년도 자유학기제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었다. 이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진행된 자유학기제를 적극 참여하고자 우송정보대학에서 학과별 자유학기제 16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간 운영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16개 중학교 1,632명이 총 72회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우송정보대학은 2016년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다양한 교육기부 행사를 아울러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외에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학과 전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9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고교생 초청 학교전공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국 고교생 469명이 참여하는 등 교육기부에 앞장서는 지역 속의 명문대학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60년 넘게 축적된 특성화된 교육시스템, 모든 학생들이 '한국대표 명장'으로 양성되는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약속하였다.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 한·중 상해 월드 페스티벌 대회 금상수상

<뉴시스,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11월 1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뷰티디자인학부에서는 10월 24~2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한·중 상해 월드 페스티벌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2016년 4월 국내에서 진행된 K-뷰티월드페스티벌 대회에서 금상이 상을 수여한 수상자에 한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만큼, 각국 대표들이 참여하여 본인의 실력을 겨루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이에, 본교 1학년 뷰티디자인학부 김은지 학생이 네일부분(화이트팁오버레이: 인조팁인 화이트팁을 붙이고, 아크릴로 덮는 과정)에서 금상의 영예를 거머쥐었으며, 같은 전공 김지연 학생은 메이크업부분(세미퍼머넌트: 반영구 시술)에서 금상을 수여하였다. 이번 행사를 지도한 우송정보대학 경 지영 뷰티디자인학부 학과장은 "뷰티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우송정보대학, 일취월장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뉴시스,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2016년 11월 10일
<MBS> 2016년 11월 12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016년 11월 9일(수) 16시, 도서관 강당에서 "우송정보대학 일취월장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배재훈 산학부총장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우경환 취업처장은 청년 취업지원에 관한 경부 취업지원정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삼성에스원 인사과장 조상권, LGU+ CS리더 인사팀 박재형,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취업성공 노하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 토크콘서트는 청년취업 활성화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하여 우송정보대학이 주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후원하여 개최하였으며, 재학생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송정보대학, 2016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뉴시스,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11월 7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016년 11월 4일(금) 11시, 우송타워 6층 강당에서 '우송정보대학 2016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K-Move사업은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우리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K-Move 센터 박현희 차장이 진행하였다.

2016 찾아가는 K-Move 해외취업 설명회는 K-Move 사업 안내 및 홍보, K-Move 멘토링, 해외취업 알선,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명회에는 뷰티디자인학부 외 4개 학과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는 설명회는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준비사항,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송정보대학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게 개최하였다.

우송정보대학 'K-Move 스쿨' 선정 기계·자동차부품·설계설비분야 일본취업연수과정

<뉴시스, 디트뉴스, 뉴스1코리아, 중도일보,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4월 19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이 K-Move스쿨에 선정되었다. 최근 2017년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해외취업사업에서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 넘치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명장이 되어 세계로 진출하라'는 슬로건을 갖고 이미 해외취업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스쿨을 운영하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해외취업 학생들을 배출 해 왔으며 이번 K-Move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일본등과 이공계열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경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K-Move스쿨 선정은 그동안 우리대학이 추진해온 해외취업 성과 및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노력해 양질의 해외 맞춤형 교육과 건실한 해외 취업처 발굴을 통해 전공과 대상 국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송정보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우수(B)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산학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강소기업협업펀드, 해외취업반 등 주문식교육(EOD)을 추진하며 졸업생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MBC 듀엣가요제,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조규찬 교수의 최고의 무대

<금강일보> 2017년 1월 16일



지난 1월 6일과 13일 금요일에 MBC에서 방영하는 '듀엣 가요제'에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의 전인 교수인 조규찬 교수가 출연하여 무대를 꾸몄다.

조규찬은 1989년 제 1회 우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무지개>라는 곡으로 금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널리 알리며 데뷔하였다. 듀엣가요제 1Round에서는 조규찬의 '다 줄거야'를 선곡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줬으며, 많은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의외의 선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멋진 무대를 마쳤다. 2Round에서는 또 오해영의 OST인 벤의 '꿈처럼'을 선곡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으나, 원곡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편곡을 더해 조규찬만의 느낌이 담긴 '꿈처럼'을 선사했다.

많은 시청자들의 반응으로 '다음 회차에도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음원으로 발매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앞으로의 조규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는 댓글이 많았다. 또한,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의 재학생인 예미니가 1월 20일과 2월3일 금요일에 듀엣가요제에 출연하여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MBC 듀엣가요제,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재학생 '예미니' 출연

<MBS> 2017년 1월 24일 <한국대학신문> 2017년 1월 26일



지난 1월 20일(금)에 MBC에서 방영중인 듀엣가요제에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재학 중인 예미니가 출연했다. 듀엣가요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듀엣쇼이며, 다양한 장르의 가수와 곡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미니는 평소 뛰어난 가창력을 겸비하여 2016학년도에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에서 주최하는 '명장 경진대회'에 2회 참여하였으며, 출중한 실력으로 인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2016 대학가요제)"에 본선 진출한 경력이 있다. 또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한 <청춘마이크 시즌2> 공모에 선정되어 4회의 버스킹 공연을 마치고도 하였다.

이 날 예미니는 '갸저탕 소녀'라는 타이틀로 출연했으며, SEEYA의 김연지와 함께 감성적인 무대를 꾸몄다. 박효신의 '좋은 사람'을 선곡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과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1Round에서는 2표 차이로 아쉽게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설 연휴를 지나 다가오는 2월 3일(금)에 듀엣가요제 2Round를 통해 1위를 노릴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과 박종학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태극권 무예명인 선정

<MBS,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1월 5일



올초부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이 소란하다. 작년 12월 24일, 대한민국 무예명인으로 박종학교수(60세)가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어릴 적, 나약했던 몸을 건강히 만들기 위해 시작한 태극권이 41년 수련이라는 시간을 통해 명실 공히 명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북경사범대학 중문학 박사이자 한국태극권학회 이사인 박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중국의 전통태극권과 진가태극권, 홀리태극권, 북방오가태극권을 전수받은 인물이다. 평소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교수는 "본디 태극권이란 경쟁이 심한 세상살이에서 강함과 같이 느긋하게 깊은 바다로 흘러 나갈 수 있는 생활 속의 도(道)를 일깨워 준다." 말하고 있다. 이같은 태극권은 청나라 황실에서 황족과 후위 무사들이 수련했던 누구나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양생술이자 스포츠이고 호신술이자 생활 속의 도(道)이었다. 넓은 공간도 많은 시간도 특별한 기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치 않음이 장점이다.

우송정보대학, 佛 국립제빵제과학교 프로그램 입학식 거행

<MBS, 뉴스1, 금강일보, 디트뉴스24,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3월 2일 <충청투데이> 2017년 3월 3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월28일(화)에 프랑스 국립제빵제과학교(INBP-Institut National De La Boulangerie Patisserie) 프로그램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을 비롯하여 프랑스 국립제빵제과학교 Jean-Francois Astier 학장, 주한프랑스대사관 Anthony Chaumazeau 교육 문화 참사관 그리고 신입생 40명이 참석하였다.

우송정보대학은 INBP의 교육, 실습, 테스트 전체 과정을 그대로 도입해 운영하며, 교육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INBP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INBP 출신의 프랑스 명장과 한국인 졸업생을 교수로 채용했다. INBP의 기준에 맞춘 실습실도 새로 구비했다. 글로벌제과제빵과 및 제과제빵학부 2학년 학생은 'Master Class INBP Patisserie WSC'이라는 명칭으로 1년간이 프로그램을 수학과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세계 권위 교육기관의 과정을 그대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생들이 제과·제빵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입학식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학습의 의지를 다지고 교직원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제과·제빵 기술 비결은 기본을 잘 다지는 것

<충청투데이> 2017년 4월 18일

우송정보대, INBP 교육 첫 도입 프랑스인 명장 1명 교수 채용도



▲ 우송정보대 파비앙 르투호노 교수(가운데)와 학생들이 제과-제빵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우송정보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프랑스 제과·제빵 기술을 한국의 대학이 도입했다. 대전 우송정보대는 제과·제빵 교육기관인 프랑스 국립제빵제과학교(INBP)의 교육과정을 이번 학기에 도입해 실시 중이다. 국내 대학 중 페이스트리와 초콜릿 분야에서 INBP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은 우송정보대가 처음이다.

프랑스 오드 노르망디 지역 도시 루앙에 있는 INBP는 1974년 프랑스 국립제빵제과연맹(CNBP)이 설립한 공립 교육기관으로 이 분야 유럽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제빵 분야 프랑스 명장 선발대회를 주관하며, 장인 16명을 포함해 교수진 40명이 매년 8000명의 학생과 연수생을 가르친다.

우송정보대는 지난해 INBP와 교육협약을 맺었다. 글로벌제과제빵과·제과제빵학부 2학년 학생이 제과·페이스트리·초콜릿 등 3개 분야에서 8개월(784시간) 동안 INBP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내용이다. INBP와 동일 기준의 3차례 테스트를 통과하면 베이커리 분야 INBP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학교는 INBP를 졸업한 프랑스 제과제빵 분야 명장(名匠) 1명을 교수로 채용하고, INBP 기준에 맞게 3억원을 들여 급속냉장고 등 장비와 실습실도 갖췄다. 글로벌제과제빵학부 김은지(32) 교수는 "다른 대학이나 학원의 경우 같은 내용 수업을 1주일에 한두 번 하는 데 그치지만 INBP과정은 주 5일 동안 계속해서 기본을 익히도록 한다."며 "항상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경혜(글로벌제과제빵학부 2학년)씨는 "실습도 여럿이 아닌 혼자 하도록 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파견 온 파비앙 르투호노 교수는 "기본을 잘 다져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노후가 생긴다."며 "이 과정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 세계 제과·제빵 관련 업체나 호텔 등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 대전시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산학협력

<뉴스1,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1월 20일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2017년 1월 22일 (MBS) 2017년 1월 23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언어재활과는 1월 20일(금) 대전시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범석)와 우송타워 13층 송파인레스도라에서 산학협력을 체결하였다.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강화하여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NCS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협조, 지역사회 연계 언어진단평가 및 언어 재활 서비스 연계, 보육실습 및 어린이집 자원봉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산하에 8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동구 자동차 공업사, 한국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는 언어재활사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 숲언어임상센터에서 지역사회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진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숲언어임상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30명이고, 현재까지 120명 정도의 의사소통장애 대상자에게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서범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1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는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의 협약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우송정보대학,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교육용유니트체어 기증 받아

<뉴스1,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뉴스1코리아> 2017년 3월 14일
<MBS> 2017년 3월 15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3월 14일(화) 오전 10시, 국제경영센터 4층 치과경영과 실습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선)와 교육용유니트체어 및 보험청구 프로그램 기증식을 가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는 우송정보대학과 함께 산학 협약을 맺고 치과경영과 신설, 사회맞춤 교육과정의 공동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치과경영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기증된 유니트체어 및 보험청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 활용되어 치과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날 기증식은 새롭게 완공된 치과경영과 실습실에서 치과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유니트체어가 직접 전달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 전문의로 인력을 배출하고 치과 의료 관련 제도 정비, 치과 의료 기술 향상 등에 힘써오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정상직총장은 "기증된 유니트체어는 한국대표 명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송정보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꾸준한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말했다.

우송정보대학, LG유플러스(주) 산학협력 협약

<뉴스1,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아시아뉴스통신, 충청투데이>
2017년 2월 14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월13일(월) 오후 1시에 우송정보대학 대학본부에서 LG유플러스(주)와 산학협력 협약을 가졌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 LG유플러스 박병욱 총경영담당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우송정보대학 스마트경영학부와 LG유플러스는 사회 맞춤형교육과 향후 5년간 취업을 위한 'LG유플러스 매니저반'을 개설·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LG유플러스 매니저반'은 재학생중 30명을 선발하여 1년간 스마트경영학부의 상품 판매, 판매센스와 노하우, 트렌드와 감각탐구 등의 교과목과 LGU+판매실무O.A, 모바일 서비스, 통신기술의 이해, 컨버지드헬스케어 등의 현장 실습을 모두 강의하며 LGU+캡스톤디자인, LGU+현장실습과 멘토, LGU+취업캠프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 중 우수학생은 LGU+의 자격특전과 우송정보대학 스마트경영학부 장학금 수여의 특혜가 주어지고 교육성과에 따라 'LG유플러스 매니저반'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우송정보대학 스마트경영학부교수는 "스마트경영학부는 기존의 샵마스터 유통경영학과와 개편학과로 높은 취업률을 바탕으로 학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학협력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LG유플러스에 우수 인재를 제공하고 학부 취업 경쟁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송정보대학, "동구 기관·단체장협의회" 개최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중도일보>
2017년 3월 22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3월 22일(수) 오전 11시, 동캠퍼스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2017 1/4분기 동구 기관·단체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구 기관·단체장협의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을 비롯한 동구지역 20개 기관·단체가 모여 기관간의 시책 홍보, 협조사항 및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는 모임으로 이날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 및 한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15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관·단체장들은 동구지역 발전 현안에 만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하며 동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우송정보대학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및 각종 진로체험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기부실현을 약속하였다.

국내외우수기업들과의 취업약정 프로그램으로 가장 빨리 [명장]을 키우는 대학

신입생이
되면

신입사원이
된다



Sol
International
School

• 글로벌명품조리과

해외 현장실습(인턴십)기관 : 신라호텔(중국),
캠펜스키호텔(독일), 그로스버너(두바이) 등

• 글로벌호텔외식과

호주 ICHM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호주 학사학위 취득

• 글로벌제과제빵학부

프랑스 INBP 및 폴보퀴즈와의 단기
교육프로그램 연계 및 국제자격증 취득

• 글로벌실용음악과

일본 소비대학과의 복수학위(2+2) 운영

WSI 우송정보대학
WOOSONG COLLEGE